

Willem de Kooning Academy

조형예술과 2017151002 강정현

전공 : Fine Arts

1. 네덜란드 로테르담

Willem de Kooning Academy(WdKA)가 위치한 도시는 네덜란드의 항구도시인 로테르담입니다. 로테르담은 네덜란드 수도인 암스테르담에서 기차로 약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있으며 헤이그와 가까운 도시입니다. 2차대전으로 인해 도시의 상당 부분이 폐허가 되어 새로 지어진 도시이기에 타 도시들과 비교하였을 때 다양한 현대식 건축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유럽국가 중에서도 다문화, 다인종국가로 잘 알려진 나라입니다. 그중 특히 로테르담은 굉장히 국제화된 도시로 거의 모든 시민들이 영어를 유창하게 하기 때문에 더치를 구사하지 못하더라도 일상생활에 큰 무리가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로테르담은 서울과 비슷하게 도시를 가로지르는 니우어마스 강을 기준으로 크게 강북과 강남으로 나뉩니다. WdKA는 강북에 위치해 있으며 관광명소인 마켓홀, 큐브하우스와 인접해 있고 가장 가까운 역으로는 Rotterdam Blaak역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 박물관, 미술관 등이 있는 중심지인 Rotterdam Centraal(중앙역) 과도 매우 가까워 지리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생활

-교통

네덜란드 내에서 사용하는 교통카드를 OV-chip 카드라고 합니다. 기차, 트램, 지하철, 버스, 배, 자전거 대여 등 모든 교통편을 이용할 수 있는 카드로, 카드에 돈을 넣고 충전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카드 발급은 OV-chip 카드 웹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는데 이때 일반형이 아닌 개인용으로 신청하실 경우 일정 금액을 추가로 지불하고 피크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할인된 가격으로 교통편을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보통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이 개인용 카드를 이용합니다. 다만 일반형을 발급받으셨다 하더라도 개인용 카드를 이용하는 사람과 같이 기차를 탈 경우 동반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현지 학생들과 여행할 경우 이점을 꼭 잊지 말도록 합니다. (동반할인은 피크시간은 제외)

도시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경우 보통 NS 기차를 탑니다. NS 앱을 다운받으시면 매일 기차 시간표와 금액 등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다운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가차를 이용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1등석과 2등석 구분과 급행열차 (Intercity direct) 탑승 시 추가금을 내는 것입니다. 별도로 1등석을 예매하지 않고 개찰구에서 카드를 태그하고 탑승하는 경우 꼭 2등석 좌석을 이용해야 합니다. 간혹 검표원들이 돌아다니며 카드 확인을 하는데 이때 1등석 구매자가 아닌데 1등석에 앉아 있으면 벌금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급행열차를 이용하실 경우 기차 타는 곳 앞에 급행 전용 태그 기계가 따로 있으니 타기 전 한번만 태그하시면 자동으로 추가금을 내시게 됩니다. 급행 열차로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역에서 로테르담 중앙역까지는 약 40분가량 소요되며 가격은 추가금 포함 약 18 유로정도입니다.

이렇듯 다양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긴 하나 개인적으로는 자전거를 하나 구매하거나 대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도시간 이동을 제외한 경우 자전거로 이동하시는 것이 빠르고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로테르담 강남 지역은 강북 지역에 비해 대중교통 이용에 제약이 많고 밤에 이동할 경우 걸어 다니는 것 보다 안전하기도 합니다. 네덜란드가 자전거의 나라이기도 한 만큼 자전거용 도로도 잘 정비되어 있으니 자전거를 적극 활용하시길 추천합니다.

(*주의 : 트램 선로가 간혹 자전거길과 겹칠 때가 있는데 이때 바퀴가 선로에 끼지 않게 주의합니다. 만에 하나 끼었다면 바로 자전거를 버리고 선로에서 떨어지셔야 합니다. 트램은 생각보다 빨리 운행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거주

WdKA 측에서 합격 메일을 받으실 때 Student assistance 에서도 생활 전반에 관련한 안내 메일을 보내줍니다. 이중에는 로테르담 내에 대학 연합 기숙사 신청 안내, 이 외에 숙소 신청 안내 등의 정보가 있고 저는 학교로부터 자전거로 약 15분 거리에 있는 SSH Robert Baeldestraat 기숙사에 입주하였습니다. 기숙사비는 한달에 약 420유로였고 3인 1실(샤워실, 화장실, 주방 공용, 개인방 있음)을 사용하였습니다. 가격은 로테르담 강북 기준 저렴한 편이었으나 방이 좀 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방을 구하는 경우 로테르담 기준 월세 평균가격은 450 ~ 500 유로 정도이고 보통 페이스북을 통해 계약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기타

식료품을 살 수 있는 마트로는 Albert heijn, ALDI, RIDL 등이 있고 식재료는 한국보다는 저렴합니다. 식당은 보통 한 명당 14유로 정도로 한국과 비교하였을 때 비싼 편입니다. 매주 화요일, 토요일에는 학교 앞 마켓홀 옆에 장이 열리는데 이곳에서 각종 신선한 식재료를 매우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신 문제는 네덜란드 입국 날 공항에서 현지 유심을 구매하여 한국 통신사가 아닌 그쪽 통신사를 이용하였습니다. 통신비는 한달에 약 15 유로 정도였습니다.

보험은 WdKA 측에서 안내한 AON 학생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다만 이 보험은 학기가 끝나고 얼마 있지 않고 만료가 되는데, 본인이 그 이후에도 체류하고 싶은 경우에는 한국 보험을 따로 신청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한국 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해외 체류중일 때 보험을 신청하는 것이 보통 불가능하므로 출국 전에 보험사에 문의하셔서 각자의 계획에 맞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3. 학교생활

WdKA의 파인아트 3학년 과정은 inside out, outside in 이라고 하여 본교생들은 교환학생, 인턴쉽 등으로 학교를 많이 나가고 대신 외부 학생들이 들어와 학교생활을 하는 기간입니다. 그만큼 교환학생 위주로 수업이 진행되어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의 작업 방식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강신청 시스템은 한국학교들과는 매우 다른데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아는 수강신청의 과정은 없고 학기가 시작할 때 파인아트 3학년들이 모이는 오리엔테이션 날 각 수업을 맡게 된 선생님들이 각자의 수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수업을 듣고 싶은 사람은 그날 선생님께서 명단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식이었습니다. 저는 전시 수업과 리서치 수업을 신청하여 한학기 동안 그 두 수업을 중심으로 학교생활을 하였습니다. 그 외 테크닉 수업 등은 학교 홈페이지에 Station skills 신청 페이지에 들어가 신청하는 방식이고 각 수업은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저는 3학년 2학기를 다녔는데 1학기는 커리큘럼이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자유롭게 열린 분위기인 2학기에 비하면 1학기는 어느정도 학교에서 들어가 할 수업들을 정해주어 계획적인 분위기라고 들었는데 각자 선호하는 바가 다를 테니 이점 염두 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들었던 전시 수업은 한학기동안 학생들이 전시를 기획하고 직접 전시를 하는 수업이었습니다. 주제 선정, 전시 장소 섭외, 큐레이팅, 전시 자금 모으기 등 모든 과정을 전적으로 학생들이 수행하여야 하는 수업이었고 선생님들은 중간점검, 크리틱 등의 도움을 주셨지만 학생들의 의사결정에 개입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전시 장소에서 학교 건물은 사용하지 못한다는 조건이 있었음)

학생들 스스로 모든 일을 진행하는 만큼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과정이 흥미로웠고 무엇보다 학생들끼리 서로 도와가며 작업을 해가면서 서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4. 기타

네덜란드 전역에 있는 박물관/미술관 등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할인카드가 있는데 이를 뮤지엄 카드라고 합니다. 박물관에서 구매 가능하기도 하며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구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가격은 65유로정도이고 한번 구매하시면 1년간 네덜란드 내에 있는 박물관 등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보통 박물관 등의 입장료가 20유로 정도임을 감안하면 본인이 3번 이상 전시를 볼 의사가 있다면 구매하시는 것이 이득입니다. 로테르담 내에 있는 식물원도 이 카드로 무료입장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덜란드 박물관/미술관 중 가볼 만 한곳

-Kröller-Müller Museum

네덜란드 오테를로 지역에 위치한 미술관으로, 국립공원과 맞닿아 있습니다. 실내 전시장도 굉장히 크지만 그보다도 엄청난 규모의 조각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피에르 위그, 리처드 세라 등 세계적인 작가들의 작업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실내 작품으로는 자코메티, 브랑쿠시, 조르주 쇠라, 모네, 보치오니 등 작가들의 작업이 있으며 고흐의 작업중에는 감자 먹는 사람들, 밤의 카페 테라스, 복숭아 나무 등이 있습니다. 오전 개장시간에 맞추어 가시는게 전체 소장품을 관람하시기에 무리가 없으실 정도로 규모가 있는 미술관입니다. 다만 대중교통으로는 가기가 매우 까다로우니 자가용이 있는 친구가 있으면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Voorlinden Museum

네덜란드 바세나르 지역에 위치하였고 사립 미술관이기에 뮤지엄 카드 할인이 따로 적용되는 곳은 아닙니다. 레안드로 에를리치의 swimming pool, 리처드 세라 (위에 언급한 작업이랑 다름. 실내설치), 제임스 터렐의 skyspace 등 공간 자체가 작업인 설치작업들이 전시되어 볼거리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작품 특성상 옮겨 다니기 힘든 작업들이 많으니 꼭 방문하셔서 실제로 작업을 감상하는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이곳도 대중교통으로는 접근하기 힘들니 자가용이 있는 친구에게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그 외 암스테르담에는 Rijksmuseum (렘브란트, 로하네스 페르메이르 등 네덜란드 황금기 작가들의 작업 있음), 반고흐 뮤지엄, Stedelijk museum 등이 있고 덴하그에는 Kunstmuseum Den Haag, Mauritshuis(진주귀걸이를 한 소녀 있음) 의 유명한 미술관들이 있고 그 외 지역에도 가볼 만 한 곳이 많습니다.

네덜란드에서의 교환학생 경험은 저에게 많은 공부와 자극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비교적 안전한 도시, 친절한 사람들 등 쾌적한 생활 환경 안에서 유익하게 한학기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체험기가 네덜란드로 교환학생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전시 도중 퍼포먼스 작업을 한 학생들



로테르담 풍경